

분단 환경과 경계선의 상상력*

우찬제**

요약

휴전선은 한국의 생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복합 기호이다. 생태학적 동일성을 상실케 한 핵심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한국문학은 냉전시대, 탈냉전시대, 디지털시대를 거치는 동안 분단 모순으로 인한 생태학적 동일성의 상실 상태와 회복에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각 시대에 따라 변별적인 징후를 보였다. 최인훈의 『광장』(1960), 박상연의 『DMZ』(1997), 그리고 강희진의 『유령』(2011) 등 3편의 소설들은 분단 환경으로 인한 비극성을 다루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각 시대의 생태 환경과 분단 초상을 변별적으로 환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최인훈의 『광장』의 이명준은 분단 1세대의 초상이다. 생태학적 동일성을 상실한 남과 북에 공히 절망한 그는 제3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자살하지만, 생태학적 동일성의 상징인 ‘푸른 광장’의 이념형을 제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상연의 『DMZ』의 베르사미는 참전자인 이연우의 아들로 분단 2세대이다. 탈냉전시대의 이방인의 탐색적 시선과 더불어 조작적 조건 형성 모티프를 통해 냉전시대의 비극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환기한다. 디지털시대를 배경으로 한 강희진의 『유령』에서는 현실에서 푸른 광장을 찾을 수 없었던 탈북자가 디지털 게임 공간에 빠져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에서 착란과 분열을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에게 있어서 가상현실은 불우한 현실에 대한 대안적 가능 세계이기도 하면서, 현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부정적 환경이기도 하다.

이렇게 세 편 모두에서 한국의 분단 환경은 생태학적 동일성의 상실과 관련된다. 각 소설의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상실에서 회복으로 나가려는 소망을 보이지만,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다.

주제어: 분단 환경, 경계선의 상상력, 생태학적 동일성, 푸른 광장, 조작적 조건 형성, 가상현실, 최인훈, 『광장』, 박상연, 『DMZ』, 강희진, 『유령』

* 이 연구는 2011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머리말

이 논문에서 필자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정치적 조건이 한국의 생태 환경과 한국인의 실존적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 구체적인 양상을 대표적인 한국 소설 3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최인훈의 『광장』(1960), 박상연의 『DMZ』(1997), 그리고 강희진의 『유령』(2011) 등 3편의 소설들은 분단 환경으로 인한 비극성을 다루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각각 냉전시대, 탈냉전시대, 디지털시대의 생태 환경과 분단 캐릭터를 변별적으로 환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¹⁾ 이 소설들에 나타난 경계선의 상상력을 생태학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세상에는 경계들이 많다. 그것들은 자연적 경계, 인공적 경계, 심리적 경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이나 계곡, 바다나 강에 의한 경계가 자연적 경계이다. 인공적 경계는 국경이나 지방의 경계, 기업의 조직, 사회적 집단 같은 경우처럼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작을 가해 만든 것이다. 심리적 경계는 개인의 취향, 선호도, 정치적 성향, 종족적 기질, 젠더적 특성 등에 의해 생겨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다. 이 셋은 서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경계를 만들기도 하고 옛 경계를 해체하기도 한다.

한반도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이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것이 1953년이니, 어느덧 반세기를 넘긴 경계선이다. 이는 한국의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이 경계가 아니었다라면 필요 없었

1) 분단과 전쟁 이후 수많은 분단 문학들이 전개되었다. 그 중 특별히 이 3편을 취한 이유는 『광장』에서 제기된 ‘푸른 광장’의 상징성과 문제의식을, 『DMZ』이 탈냉전시대의 상상력으로 접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고, 『유령』은 최근 디지털시대의 문제의식으로 그것을 해체, 재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맥락을 달리 하면 다른 탈북소설이나 무국적시대의 소설들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의들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겠다.

을 많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비용들이 남과 북 양쪽에서 지불되어 왔다. 만약 그 누구도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이 경계가 없었더라면 한국과 한국인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휴전선이라는 경계는, 한국이라는 분단국가의 정치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복합 기호이다. 이 경계선을 도외시하고 한국의 생태 시스템을 논할 수는 없다. 이 경계선과 관련한 상상력으로 인해 한국문학은 독특한 정치적 (무)의식 혹은 생태학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인물들을 형상화해 왔다.

휴전선이라는 경계선의 복합적 성격 못지않게 그와 관련된 생태 의식도 복합적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우선 핵심 개념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먼저 ‘생태학적 동일성’의 세계를 상징한다. 동서를 막론하고, 흔히 로맨스의 세계를 논의할 때 동일성의 상실과 회복의 드라마를 언급하는데, 이때 동일성은 자아와 세계 사이에 갈등 없는 화해를 의미한다. 낙원의 세계나 천상계의 존재론을 신화적으로 암시한다. 근대 이전에는 상실된 동일성을 회복하는 드라마가 가능했는데, 근대 이후 자아와 세계의 험악한 분열로 인해 그 회복의 드라마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근대 인식의 비극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로맨스의 드라마는 은연 중 이원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이다. 천상계와 지상계, 혹은 낙원과 낙원을 상실한 지상이라는 이원적 세계관이 그것이다. 이 이원적 세계관을 넘어서 리얼리즘 문학론을 전개하면서 루카치는 총체성을 강조했다. 이때는 사회경제적 기초와 이데올로기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루카치의 총체성 개념은 모더니즘 시대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구상하는 생태학적 동일성은 루카치의 총체성 개념에 생태 환경이라는 자연적 요소와 생태학적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심리적 요소를 추가한 더 복잡하고 넓은 개념이다. 루카치의 총체성은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개념이지만, 내가 제안하는 생태학적 동일성은 그것을 넘어선 생태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소망스런 삶의 지평을 은유한다.

흔히 생태학적 존재는 매우 복잡한 그물 속에서 다른 존재와 관련하여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삶 혹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을 때 생태학적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생태학적 동일성이 유지되기는 매우 어렵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과 타인이나 다른 사물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사이에 허물없는 조화 가능성이란 실제로 매우 희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태학적 무의식 혹은 공동체적 집단 무의식에 기초했던 중세까지의 삶과는 달리 근대 이후의 삶에서 생태학적 동일성이 유지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근대 이후 생태학적 무의식이 억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오도르 로작(Theodore Roszak)은 산업사회와 공모한 광기에 의해 억압된 생태학적 무의식으로의 귀환을 강조했다. “생태학적 무의식에 대한 열린 접근이야말로 제정신으로 가는 길”²⁾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랄프 메츠너(Ralph Metzner)는 생태학적 무의식의 개념도 호소력 있는 전문 용어가 될 수 있겠지만, 무의식적인 것을 구체화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태학적 의식 또는 생태학적 양심의 측면을 강조한다.³⁾ 이때 생태학적 무의식이나 의식은 생태학적 동일성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된다. 생태학적 동일성의 세계가 기본적으로 생태학과 심리학의 복합 지평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리적 기제가 실제 접근에 매우 유용하다. 문학에서 생태학적 무의식은 생태학적 동일성에 대한 꿈, 소망, 혹은 생태

2) Theodore Roszak, 1992, *The Voice of the Earth*, New York: Simon & Schuster, p. 320. 로작은 집단무의식에 대한 C. G. 융의 견해가 원래는 인류 이전의 동물과 생태학적 원형들을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나중에 주로 전인류적인 종교적 상징들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집단무의식의 본래 의미를 되살려 우주적 진화의 살아있는 기록으로서 ‘생태학적 무의식’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 로작은 프로이트 학파의 이드라는 개념 또한 고대 생태학적 지혜의 저장소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드의 문을 통해 가이아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Ralph Metzner, 1995, “The Psychopathology of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Theodore Roszak, Mary E. Gomes, & Allen D. Kanner ed., *Ecopsychology: Restoring the Earth Healing the Mind*,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p. 63.

학적 동일성의 세계가 상실된 상황에서의 징후 등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텍스트에 언어와 플롯으로 구조화되는 생태학적 의식은, 인물이나 이야기가 주제화하거나 강조하려는 의도와 관련된다. 생태학적 의식은 물론 생태학적 무의식과 현실의 생태 환경 사이에서 역동적인 심리적 스펙트럼을 보일 수 있다.

남과 북 사이의 경계인 휴전선이라는 생태 환경을 응시하는 이 글의 특성상 정치적 생태학이나 사회적 생태학⁴⁾ 및 심리적 생태학의 접근 방법들이 심층 생태학의 철학과 관련하여 원용될 것이다. 휴전선은 한국의 생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복합 기호이다. 생태학적 동일성을 상실케 한 핵심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한국문학은 냉전시대, 탈냉전시대, 디지털시대를 거치는 동안 분단 모순으로 인한 생태학적 동일성의 상실 상태와 회복에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각 시대에 따라 변별적인 징후를 보였다. 그 징후 읽기를 통해 분단 환경에서 보인 한국문학의 경계선의 상상력을 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냉전시대 비판과 푸른 광장 탐문: 최인훈의 『광장』

1960년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냉전시대에 한국의 분단 상황 및 세계 체제에 대한 관념적 성찰을 바탕으로 씌어진 소설이다. 이 소설은 표제가 암시하는 것처럼 공간 생태가 배경이면서 주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광장’과 ‘밀실’로 상징되는 대립상의 해소를 통한, 다시 말해 ‘광장-밀실’의 변증법적 지양을 통한 제3의 공간 내지 제3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

4) 변증법적 자연주의(dialectical naturalism)의 접근 방식을 통해 현 단계의 생태 문제가 사회 문제로부터 야기되었음을 강조한 머레이 북친 등의 논의를 떠올릴 수 있다. Murray Bookchin, 1995, *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 Essays on Dialectical Naturalism*, New York: Block Rose Books, p. 35.



는 희망의 추구하고 그 현실적 좌절이 기본 골격을 이룬다. 이 작품에서 광장이 집단적 삶, 사회적 삶을 상징한다면, 그 반대편에서 개인적 삶, 실존적 삶을 상징하는 것이 곧 밀실이다. 타락한 밀실 위주의 남한 자본주의 사회와 타락한 광장 위주의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히 실망하고 절망한 이명준이 제3국으로 가는 배위에서 바다로 투신자살하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중심이다.

소설 『광장』에서 작가가 상정해 본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는 곧 생태학적 동일성이 구현된 세계이다. 그러나 이 욕망은 현실에서 충족하기 매우 어렵다. 주인공 이명준이 광장을 없애고 밀실로 스며든 남쪽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도, 심지어 밀실마저 온전하지 못한 남쪽의 삶에 혐오를 느끼며 상처를 받는 이유도, 다 생태학적 동일성의 세계와 거리가 먼 현실 때문이다. 자기가 소망하는 생태학적 동일성의 세계와 거리를 느낀 이명준은 현실 거부와 징후를 보이며 남한을 탈출하여 북한으로 수평 이동한다. 그것은 남한의 삶에서 결여된 부분을 채워 좀더 생태학적 동일성의 세계에 다가서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개인의 밀실을 폐쇄한 채 집단적인 광장만을 강요하는 북쪽의 삶, 게다가 광장마저 철저하게 타락해 버린 북쪽의 삶에도 격한 분노를 느낀다. 그곳 역시 생태학적 동일성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포로 석방 때 제3국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남도 북도 모두 소망스런 생태학적 동일성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기에, 이명준은 제3의 가능성을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시대였던 1960년에 제3의 길은 추상일 뿐 현실일 수 없었다. 당시 지구상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대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수 있는 제3의 이데올로기는 존재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약관 20대 중반의 철학도 출신 포로가 그 제3의 이데올로기를 당장 제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이명준은 이데올로기라는 암초에 걸려 꼼짝도 못하게 된 형국이었던 셈이다.

냉전시대에 이데올로기는 암초였다. 생태학적 무의식은 물론 정치적 무의식도 억압되기 일쑤였다. 이데올로기의 길은 닫혀 있었다. 그렇다면 다

른 길은 없는가. 억압이 심한 바로 그 지점에 다른 길의 잠재적 가능성도 깃들여 있게 마련이다. 이명준은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랑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기에 우선 사랑의 길은 매우 소중하다. 주인공 이명준이 그토록 소망하던 ‘광장-밀실’이 어우러진 삶의 소망스러운 지평을 은혜에게서 발견하는 장면에서 그것은 뚜렷하다. 낙동강 전선에서 둘이 만나 동굴에서 나누는 야생의 사랑은, 생태학적 무의식이 억압받지 않고, 생태학적 동일성이 구현된 원형적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어떤 경계나 금기도 넘어서 야생적 공간에서, 그 어떤 정치적 억압이나 사회적 억제로부터도 자유롭고, 오로지 가이아의 리듬에 따라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랑이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훼손된 현실에서의 사랑이란 또한 상처뿐인 것이었다. ‘광장-밀실’이 조화를 이룬 생태학적 동일성이 구현된 소망스런 삶의 생태는 현실에서 쉽게 이루기 어려운 것이었다. 전쟁 도중 은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은 추락하고 만다.

그래서 작가는 현실의 길이 아닌 신화의 길을 응시한다. 이명준은 제3국 행 배 위에서 바다 위를 나는 두 마리의 갈매기를 보게 된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었는데 차츰 이명준은 두 마리 갈매기와 교감하면서, 그들이 바로 은혜와 뱃속의 아이라는 짐작을 하게 된다. 은혜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데올로기의 포화 속에서 사랑을 상실한 채 추락했으되, 신화의 세계에서는 날개를 달고 갈매기로 수직 상승한 셈이었다. 현실적인 수평 이동으로 생태학적 동일성이 구현된 세계를 만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신화적인 수직 이동을 꿈꾸는 것이다. 일찍이 스스로 미로를 만들었던 다이달로스가 그랬고, 이상의 「날개」의 주인공 역시 날개 달기를 소망했던 것은 수평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직적 상승 이동은 신화의 세계에서 가능하다. 이명준이 하늘의 갈매기를 보았을 때, 눈 아래 바다는 문득 잃어버린 광장처럼 다가왔다.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른 바다로 그가 뛰어든 것은, 현실에서 더 이상 수평적으로 이동한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신화처럼 수직적 상승 운동도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다음 본문은 소설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명준의 최후 부분이다. 소설의 이야기 전체를 ‘부채’ 형상으로 압축, 통합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한 작가의 묘사 태도에 깃든 생태학적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부채를 쭉 편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킨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별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랐다.

……**㉔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중략) 다음에, **㉕부채의 안쪽 좁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하고 있다. 윤애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꼴호즈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치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㉖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 **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㉗둥굴이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㉘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자리에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㉙무덤 속에서 몸을 뽀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㉘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㉙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친 그는 지금 핑그르 뒤로 돌아선다. ㉚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썩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미칠 듯이, 물 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㉛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㉜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⁵⁾(부호 및 진한 강조는 인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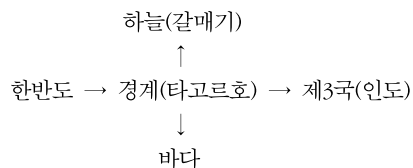
이 묘사 시퀀스에서 첫 단락에는 묘사의 시작을 알리는 일련의 표지들이 들어 있다. 묘사자와 묘사 대상인 부채 사이의 관계 설정 및 묘사 대상의 지각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의 2/3부분까지는 부채로 비유된 자신의 과거 삶 전체, 의식과 무의식 전체가 총람적으로 압축되어 있다. ㉔에서 ㉞까지 강조한 부분을 주의하여 읽어보면, ‘펼쳐진 부채’로 상징되는 생태 환경 혹은 존재 광장의 축소 괴멸 과정을 점층적으로 묘사한 것임을 알게 된다. 부채의 사복자리 끝까지 내몰렸던 주인공은 환멸 속에서 자기를 방기한 채 제3국으로 표류하고 있었던 것임을 ㉟를 통해 반성하게 된다. 동굴 속에서 나누었던 은혜와의 사랑은, 전쟁 상황의 급박함이나 죽음의 풍경과는 아랑곳없이, 생태학적 동일성이 확보

5) 최인훈, 1978/1996.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186~188면.

될 수 있었던 무의식의 풍경이었다. 그것이 은혜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는 죽음에서 새로운 삶을 예비하는 생태학적 환상을 환기한다. 자기 아이를 잉태했던 은혜의 죽음은 죽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이런 ㉠ 단위로 인해 주인공은 ㉠처럼 제정신이 들게 되고, 상징적인 ‘푸른 광장’을 보게 된다. 또 ㉠의 손짓에 ㉡처럼 간절하게 응답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신내림’의 분위기 속에서 ‘활짝 웃’으며 ‘푸른 광장’으로 몰입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⁶⁾ ㉠의 앞 문장에 ‘돌아선다’는 서술어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그가 찾고자 했던 수평축에서의 ‘광장’이 밀실과 대립되는 현실의 광장이었다면,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광장이었다면, 그가 돌아서서 볼 수 있었던 ‘푸른 광장’은 수직축에서 새롭게 열리는 영원의 광장이 되는 것이다. 그 푸른 광장은 광장과 밀실이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생태학적 동일성을 이루는 세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제 수평축은 사라지게 된다. 수직축만이 의미 있는 공간 구도가 된다. ㉢에서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보”는 장면은 방향 전환 후의 지각 행위를 나타낸다. 위쪽에서 그녀들이 보이지 않는다. ㉣에서 보이는 것처럼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로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었던 까닭이다. 여기서 지향점과 공간 운동의 방향이 암시된다. 게다가 ‘바다’라는 한 단어가 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적 지각 행위는 곧 ㉠와 ㉡의 내면적 교감과 대화로 이어진다.⁷⁾

현실에서 의미 있는 광장도, 밀실도 지닐 수 없었고, 더더욱 소망스런 ‘광장-밀실’의 조화로운 삶을 살 수도 없었던 이명준이 바다에 투신하기

6) 이를 간단한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우찬제, 2005. 『텍스트의 수사학』, 서강대학교출판부, 323~324면 참조.

직전에 보았다는 ‘푸른 광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현상적으로 푸른 바다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여기에 매우 다각적인 의미망을 형성해 놓는다. 무엇보다 ‘푸른 광장’은 분단시대의 작가 최인훈의 대안 상상력과 관련되는 문화적 약호다. 민족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남북 분단이 해소된 광장, 정치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갈등이 해소된 조화로운 광장, 경제적으로 타락한 욕망과 부의 불평등이 해소된 광장, 문화적으로 창조의 열정이 꽃피는 광장 등을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기호다. 그것은 또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랑이 훼손되지 않는 광장의 모습이기도 하다. 나아가 생태학적 동일성이 훼손되지 않는 삶의 환경에 대한 동경을 암시하기도 한다. 작가 최인훈은 ‘푸른 광장’이라는 문화적 약호를 통해 그가 소망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최종 심급에서 이데올로기와 사랑의 경계를 넘어서 소망스런 삶의 지평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제 ‘푸른 광장’은 비록 분단국 작가의 대안 상상력에서 비롯되었으되,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웅숭깊게 성찰하는 세계 문학 작가의 대안 상상력으로 심화의 길을 걷는 문화적 약호로 재해석될 수 있겠다.

요컨대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은 ‘광장-경계-밀실’, ‘남한-경계-북한’, ‘한반도-경계-제3국’ 등의 수평적 삼원 구조 안에서 고민한 인물이다. 그 고민들은 ‘좌절-방향-모색’의 계기체의 변화 있는 반복을 통해 구조화된다. 이 수평적 구조 또는 수평적 공간 이동을 통해 통합적 지향 공간을 발견할 수 없음을 알게 됨과 동시에 갈매기들의 정체를 환각 속에서나마 알게 된 그는, 수직적 공간 이동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때 ‘하늘-경계(배)-바다’라는 수직적 삼원 구조가 개입한다. 갈매기들의 상하 수직 운동을 따라 영원성의 ‘푸른 광장’으로 상징되는 바다로 투신하는 수직적 하강 운동으로 주인공은 ‘좌절-방향-모색’의 계기체를 마감한다. 『광장』에서 수평적 삼원 구조와 수직적 삼원 구조가 결합되면서, ‘이데올로기-경계-사랑’의 종합이라는 지향 의식이 생산된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소망스런 정치적



무의식 및 생태학적 무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강고하게 관철 되던 냉전시대를 분단국에서 살던 작가 최인훈은 그 어떤 세계문학 작가보다도 예민하게 그 냉전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사랑의 총체성, 생태학적 동일성이 구현된 소망스런 ‘푸른 광장’을 동경하고 추구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이명준을 죽음으로 안내하고 애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명준에 대한 애도는 곧 아직 구현되지 않은 희망의 원리인 푸른 광장에 대한 애도이자 강렬한 소망이기도 하다.

Ⅲ. 탈냉전시대에 냉전의 비극적 조건 재탐문하기: 박상연의 『DMZ』

『광장』에서 이명준의 현실적 절망은 자살로 마무리되었다. 제1의 길에서도, 제2의 길에서도 그에게 생태학적 동일성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3의 길로 향한 여행을 시도했던 것인데, 그 여로는 시작되자마자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명준이 제3의 길에서 꿈꾸었던 ‘푸른 광장’의 지난한 상징성 때문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상연의 『DMZ』는 새로운 소설의 길을 찾아 떠난다.⁸⁾ 제3의 길 위에서 자살한 이명준을 되살려 그 이후의 세월을 조망하기 위함이다. 이제 최인훈의 이명준은, 박상연의 이연우가 된다. 그러나 이연우는 이명준과는 달리 이미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길을 열어나가는 주체의 입장일 수 없다. 아들에 의해서 반성적으로 조망되는 한갓 피사체에 불과한 운명일 따름이다. 새롭게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한 아들 베르사미에게 있어 그는 비판의 대상일 뿐이

8) 필자는 이전에 「제3의 길을 찾아서: 박상연의 『DMZ』 읽기」(『고독한 공생』, 2003. 문학과지성사, 411~426면)에서 박상연의 『DMZ』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본고의 맥락에 따라 그 논의를 이어받았음을 밝힌다.

다. 냉전시대의 피해자인 아버지에 대해, 탈냉전시대를 사는 아들 베르사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는 『광장』이라는 소설을 이야기하며 나의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책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자살을 한다고 한다. 아버지도 강중위가 말한 그 주인공처럼 ‘크레파스보다 더 진한 인도 양’에 몸을 던졌어야 했다. 아버지의 인생이라는 소설도 그렇게 매력적인 결말을 가지는 게 나왔다. 나와 쿠비,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좋았다……⁹⁾

『광장』보다 한 세대 후의 소설인만큼 박상연의 『DMZ』는 이명준이 아니라 그 아들 세대가 이야기의 주역을 담당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판문점 북쪽에서 벌어진 남한 병사에 의한 북한 병사 총기 난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일종의 추리 기법으로 전개된다. 수사 담당자인 서술자-주인공은 한국-켈트 혼혈로 스위스 국적을 가진 중립국감독위 소속 소령이다. 주인공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사와 한반도의 분단사 및 현 단계의 분단 상황을 포개어 놓는다. 현재의 비무장지대 출신인 주인공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직전 남로당의 일원으로 월북하여 전쟁 때 인민군 소좌로 참전, 낙동강 전투에서 포로가 된다. 맹렬한 공산 포로의 선두에 섰던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포로수용소에서 반공 포로였던 동생을 조건 반사처럼 살육하고 만다. 그 후 인도를 거쳐 브라질에서 살다가 브라질 주재 스위스 여기자를 만나 결혼, 주인공을 낳는다. 이런 아버지의 마지막 열망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통일된 한반도로 귀향하는 일이었다. 이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주인공은, 남/북의 군인들이 이데올로기와는 상관 없이 휴전선 이북에서 몰래 만나 인간애를 나누다가 조건 반사처럼 총기를

9) 박상연, 1997. 『DMZ』, 민음사, 162면.

난사하고 그것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을 체험하면서 서서히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자기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한반도에서의 절망으로 인해 제3국으로 떠났으면서도 끝내 수구초심을 버릴 수 없었던 아버지, 그래서 자식에서 한국인임과 한국어를 강조했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나 비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베르사미의 아내 쿠비는 둘 다 피해자라며, 차라리 그 불행의 진원지인 극동에 가서 피하지 말고 많은 것을 느끼고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마련하라고 권한다. 이에 아내 쿠비가 들려준 아버지의 진군일기를 가지고 판문점으로 부임한 주인공은 한편으로는 김수혁을 수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일기를 보거나 아버지의 고향 마을을 다녀온다. 물론 그는 시종 냉담한 이방인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진행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그 모든 것들과 차츰 심리적으로 연루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역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아버지의 궤적에 대한 나름의 이해 지평을 확보하게 된다. 이해 지평 속에서 죽이기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는 거듭 반추되면서 연민 어린 되살리기의 대상으로 옮겨진다.

난 지금 남에도 북에도 있지 않았다. 이 벽돌 위의 폭 15 센티미터 정도의 자그마한 면적은 어느 나라의 것일까? 그 벽돌위에서 왼쪽으로 넘어지면 조선인민공화국,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대한민국…… 이 좁은 벽돌 위로 중심을 잡고 균형 있게 걸어보았다. 그러다 대한민국 쪽으로 내려왔다. 이 벽돌 위에 누군가 살 수 있다면 아버지는 브라질까지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다. 아버진 이런 곳을 원한 것이 아닌가. 남도 북도 아닌 곳……¹⁰⁾

15센티미터 정도의 경계선 벽돌 위에서 분단 현실을 새삼 인식하고 나서

10) 앞의 책, 148면.

“아버진 이런 곳을 원한 것이 아닌가. 남도 북도 아닌 곳……”이라는 생각을 추스르는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아주 많이 이해하게 된다. 그 경계선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생태학적 동일성이 그토록 힘하게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며, 제3국으로 간 이후의 아버지의 삶도 그토록 힘겹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비극적 삶이 비롯된 지점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에 대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

아버지에게 혁명과 통일이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최후의 이데올로기의 전장 끄트머리에 서서 나는 이 땅이 갈라져 있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도대체 뭐하는 짓들인가? 같은 민족끼리, 형제끼리 총을 겨누게 하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같은 언어를 소유한 집단끼리 한마디 말도, 몸짓도 금지 당해 언어가 정지된 곳…… 언어는 존재다. 이곳엔 싸늘하고 낡은 이데올로기의 그림자 이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장소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아버진 이런 자신의 조국을 건널 수 없어서 인도를 택했을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이 땅은 참 안스러워 보였다.¹¹⁾

여기서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이 땅은 참 안스러워 보였다”는 복합적인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방인의 절제된 감정과 분단국 2세대의 연루된 감정이 병치되어 있는 가운데, “참 안스러워 보였다”의 지시대상이 “이 땅”에 한정되지 않고 “아버지”로도 대치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분단 상황의 현재와 과거, 이방인을 자처하는 아들과 비극적 정한의 과거사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아버지가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대화적 상상력은 분단 한국의 역사적 대화이기도 하며, 분단 상황에 대한 세계의 이해를 구하는 대화 요청이기도 하다.

11) 앞의 책, 228면.



최인훈과는 달리 박상연은 탈냉전시대의 작가이다. 탈냉전시대의 작가로서 냉전시대의 비극을 떠올리면서 그것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성찰하려는 것이 이 소설의 의도처럼 보인다. 냉전시대의 피해자인 아버지와 관련해 ‘아비 죽이기’에서 ‘아비 되살리기’에 이르는 복합적인 감정을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단된 환경의 생태 조건에 대한 탐문을 사회생물학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가 한반도를 떠난 것도, 자신이 혼혈로 태어난 것도 모두 한반도의 분단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분단 환경에서 변함없이 지속되어온 비극적 삶의 생태를, 작가는 ‘조작적 조건 형성, 오퍼런트 컨디셔닝’의 문제로 접근한다.

소설 『DMZ』에서 서사적 현재의 핵심사는 김수혁의 북한 병사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수혁을 취조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가 됨과 동시에 분단 환경을 짚는 하나의 잣대로 조작적 조건 형성이 문제된다. 심리학과 출신의 군견병인 김수혁은 전임자가 길들인대로 자기 개를 식사시킨다. 며칠 굶겨 사나워진 개가 먹이를 보고 달려들면 몽둥이로 때린다. 몇 번이고 먹이만 보여주고 패는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개의 눈에 플래시 불빛을 비추고 먹이를 준다. 그러면 개는 얻어맞은 기억 때문에 망설이면서도 배고픔에 못이겨 먹이를 먹는다. 이를 되풀이하다 보면 개는 플래시의 강렬한 불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게 된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처럼 플래시 불빛만 비추면 침을 질질 흘리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조작적 조건 형성의 문제에 대해 작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따분하고 지루한 군견병의 스트레스 때문에 인위적으로 비정상적인 조작을 가한 것이 빌미가 되어, 건강했던 개가 피폐해지고 마침내 미치고마는 사태의 반생태적인 문제성을 주목한다. 조작적 조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개의 영혼을 어찌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동물과 인간 사이의 반생태적인 오퍼런트 컨디셔닝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된다. 같은 상황이 개에게 그것을 형성시켰던 군견병 김수혁에게도 되풀이된다. 다만 군견 마루와의 관계에서 조작

주체이던 그가 조작 대상이 된다는 점만 다르다. 김수혁은 DMZ 수색 도중 지뢰를 밟는 바람에 대열에서 낙오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인민군과 조우하게 되어 영락없이 죽었구나 생각했었는데, 인정 많은 인민군 오경필에 의해 구조된다. 이 일을 계기로 인민군 오경필, 정우진과 남북을 넘나들며 교분을 맺게 되고 남성식까지 끌어들인다. 그러는 가운데 “내 나이 또래의 청년은 남에서나 북에서나 고민하는 종류와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에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자연스런 인정의 교감이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남북의 대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경계에 비상이 자주 걸리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휴전선 이북에서 다른 때처럼 만나 정을 나누다가 그들은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만다. 우연한 총기 오발사고에 의한 총소리가 DMZ의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 김수혁이 권총을 뽑아 인민군 정우진과 오경필을 겨냥하는 조건반사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잠깐 동안 나눈 인민군과의 인간적 교분에 앞서 서로 죽이고 죽을 수 있는 적성국가의 군인이라는 생각이 김수혁의 조건반사를 자극했고, 그에 따라 뽑아낸 총탄에 의해 인민군 정우진이 죽고 오경필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다. 남과 북의 군인들이 허심탄회하게 정을 나눈다는 것은 탈냉전의 가능성을 함축한다. 그러나 그러다도 조건반사처럼 총질을 했다는 것은 냉전시대의 적대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강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작가는 김수혁과 남성식의 조건반사적 총질을 철저하게 조작적 조건 형성의 시각에서 다룬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남성식은 “지난 50여년 동안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을 지목했고, 김수혁은 자기 “삶 전체가 이 사건의 동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다소 길게 전개되는 김수혁의 24년간의 삶의 이야기가 입증하는 것처럼,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 철저하게 길들여진 의식과 삶,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경계선을 조작하는 분단사회의 환경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둘러대도 좋을 정도로 조작적 조건의 의미는 강조된다. 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주인공의 아버지 이연우의 사건과 포개어진다.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 포로가 된 동생을 만난 공산 포로 이연우는 동생의 목을

직접 베는 어처구니없는 난행을 저지른다. 경찰조에서 ‘미군이다’를 소리 치자 그는 미군에 대한 공포로 인해 “등골이 오싹하면서 모든 세포가 거꾸로 서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때, 꿰어앉아 있던 동생 연철이 급히 일어났는데, 그것이 칼을 빼앗아 형을 공격하기 위해서였는지,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칼을 빼고만 것이다. “선피를 쏘으며 반이상 잘려나간 연철의 목이 나에게로 떨어지어지던 기억…… 그 연철이의 마지막 고개짓…… 나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내 비명을 듣지 못했고 내 귀에도 그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내가 무슨 짓을 했나……”¹²⁾ 이런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연우,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의식할 겨를도 없이 저지른 엄청난 충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좌절한 혁명전사 이연우 역시 조작적 조건 형성의 가해자이자 피해자 중의 하나인 셈이다.

‘유령처럼’ 작동하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 문제라는 것,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반생태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구성적으로 형상화해 놓은 것이 소설 『DMZ』의 문제성이다. 이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분단사와 그 비극성의 한 단면을 묘사하고자 한 것이 이 소설의 중심적 의미망이다. 특히 이 소설에서 집중적으로 탐문한 오퍼런트 컨디셔닝 테마는 세계 체제나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반생명적이고 반생태적인 비극을 인상적으로 강조하는데 효과적이다. 소설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의 피해자들은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¹³⁾ 특히 이연우는 죽어서도 그가 원하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던 곳, 즉 ‘남도 북도 아닌 곳’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 경계선의 고정을 강조하는 영토화된 이데올로기, 혹은 그것이 형성해 놓은

12) 앞의 책, 235면.

13) 김수혁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다음에 강중위의 권총을 빼앗아 자살했고, 그가 기르던 군견은 비참한 광태를 보이다가 주인공의 권총에 죽어갔다. 주인공의 아버지 이연우는 이역만리 정신병원에서 싸늘하게 육신을 거두어갔다.

조작적 조건에 의한 희생양의 형식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경계선의 경향과 인물들의 비극은 인위적 경계나 조작적 조건 형성이 아니었다면, 다시 말해 생태학적 동일성이 보장되고 생태학적 무의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행하는 ‘푸른 광장’에서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IV. 디지털시대의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경계: 강희진의 『유령』

근대 이후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진정한 생태학적 의식을 견지하고 일상적 삶을 살기 어려웠다. 생태학적 의식은 각종 근대적 제도나 규율에 의해 억압되었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 논리에 의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후기산업사회 혹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양면적 혹은 다면적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생태학적 의식을 억압했던 과거를 반성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억압 기제를 더욱 심화하여 심지어 생태학적 무의식마저 억압하려는 양상도 나타난다. 특히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스토리텔링들의 경우 한편으로는 생태학적 무의식으로 귀환하려는 상상의 노력을 펼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디지털 규범에 의해 그 무의식마저 억압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의 특성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런 보편성에 분단국인 한국의 특수 상황을 결합하면 새로운 문제의식을 도출할 수 있다.

2011년 작 강희진의 『유령』은 바로 그런 상상력을 보이는 소설이다. 북한에서 탈북한 주인공과 그 동료들의 생애를 사실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¹⁴⁾ 사실적이라고 한 것은,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사정, 탈북 이후 남한의 경제적 문화적 사정 등을 실감 있게 기술했다는 말이다. 상징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탈북자들의 생리를 그린 것이



아니라 21세기 세계의 문제의식을 독특하게 구성해 놓고 있다는 뜻이다. 개인과 집단, 가족과 사회, 남한과 북한, 한국과 세계, 양성애자와 동성애자,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경계를 중층적으로 탐문한다. 이러한 경계선의 인물인 문제적 주인공을 통해 작가는 분단 문제와 가상현실 문제를 복합적으로 성찰한다.

『유령』의 주인공은 『광장』의 이명준보다 2세대 다음 세대이다. 한국전쟁 당시 주인공의 할머니는 아버지를 잉태한 몸이었다. 지주였던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월남했다. 북한에서 아버지는 월남한 지주의 자식이라는 오명 때문에, 노래를 잘 불러 배우로 중앙 무대에 서보고 싶었던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농민으로 전락해 어렵게 살았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북한 공산주의 사상이 강해 함께 탈북하자라는 아들의 말을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먹고살기 어려운 북쪽의 삶을 과감히 포기하고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남한에서 살게 된다. 북한에서 쓰던 본명 주철을 버리고 중국에서 아사한 친구 하림의 이름으로 산다. 대학에서 연극을 했던 그는 아버지가 북쪽에서 못 이룬 배우의 꿈을 남쪽에서 펼칠 수 있게 되었지만, 북쪽 가족에서 피해가 될까 두려워 TV에 나가는 것을 꺼리다보니 어느새 단역 하나 맡기 어려운 룸펜이 되어 탈북자들이 모여 사는 허름한 곳에서 지낸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비루한 처지지만, 온라인 가상현실에서는 그렇지

- 14) 『유령』 이전에도 탈북자들을 다룬 소설들은 여럿 있었다. 박덕규의 『고양이 살리기』(청동거울, 2005), 강영숙의 『리나』(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황석영의 『바리테기』(창비, 2007), 권리의 『원손잡이 미스터 리』(문학수첩, 2007), 이대환의 『큰돈과 콘돔』(실천문학, 2008), 정도상의 『질레꽃』(창비, 2008), 이호림의 『이매, 길을 묻다』(아이엘엔피, 2008) 등 이외에 몇몇 단편들이 있다. 이런 탈북자를 다룬 소설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성희. 2009.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한국문학논총』 51. 한국문학회; 고인환. 2009.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2. 한국문학회; 홍용희. 2009.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40. 한국언어문화학회; 이경재. 2009. 「네이션과 2000년대 한국소설」. 『문학수첩』 2009년 겨울호; 백지연. 「타자의 인식과 공공성의 성찰」. 『창작과 비평』, 2009년 겨울호; 김효석. 2010. 「『거울』의 서사와 '탈북'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 『문예운동』 105. 문예운동사 등.

않다. 리니지 게임 공간에서 그는 쿠사나기 군주로서 한 용맹한 혈맹을 이끈다. 현실의 비루함과 가상현실¹⁵⁾의 행복함 사이의 대조가 그의 몸과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한다. 그럴수록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를 지우려고 의식적으로 몸부림친다. “쿠사나기는 내 아바타가 아니다. 바로 나다.”¹⁶⁾ 게임 속의 아바타인 쿠사나기가 바로 자신이라는 이런 인식은 디지털시대의 게임 폐인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의사에게 “게임은 현실이에요. 꼭 같은 건데요.”¹⁷⁾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에게 게임이 왜 현실인가 라는 질문은 곧 왜 사느냐는 질문과 같다. 그에게 현실은 불안을 가증시키는 환경이지만, 게임이란 가상 현실은 편안한 모태와도 같은 생명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진다.

나는 게임을 하면 편안하다. 정말 그렇다. 실은 그곳은 현실보다 더 피가 튀기는 공간이지만. 게임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따뜻한 방안의 이불 속 같다. 솔직히 말하면 이불 속이 아니라 자궁 안 같다. 엄마의 자궁. 나는 그 속에서 몸을 벌레처럼 돌돌 말고 있는 작은 생명체이다.¹⁸⁾

15) 마리로르 라이언은 가상현실(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종합하면서, ‘버추얼’의 의미 정립을 위해서 ‘실제(actual)’와 ‘가상(virtual)’의 대립적 자질들을 나열한 바 있다. “일어난/잠재적인, 사실적인/비사실적인, 이루어진/가능의, 닫힌/열린, 물질적인/정신적인, 구체적인/추상적인, 특별한/일반적인, 종결적인/비종결적인, 결정적인/비결정적인, 유형의/스펙트럼상의, 현세적/비현세적, 공간내적/탈영토적, 단수의/복수의, 현재/과거와 미래, 여기/거기, 우리/그들 혹은 타인, 고체적인/휘발적인, 실체적/비실체적, 형상/기저, 가시적인/잠복된, 현존/부재, 면대면(面對面)/중개적인, 기계적인/전자적인, 물질/정보, 공간/가상공간, 계측적인/비계측적인, 존재/현상, 정체성/역할 놀이, 진지한 행동/가장하기, 생생한 경험/환상이나 꿈, 사실/허구, 본질/형상, 진정/거짓 혹은 시뮬레이션, 진실/환영, 원본/모사, 지시대상/이미지”(Marie-Laure Ryan, 2001. *Narrative as Virtual Reality: Immersion and Interactivity in Literature and Electronic Media*, The Johns Hopkins UP., p. 28.) 등이 바로 그 대립쌍들이다.

16) 강희진. 2011. 『유령』. 은행나무, 25면.

17) 앞의 책, 51면.

18) 앞의 책, 51면.

모태에서 생명은 충만한 기운을 지닌다. 그래서 신화적으로 모태는 생태학적 동일성이 보장된 공간으로 논의된다. 가상현실의 게임 공간이 주인공이나 그의 탈북자 동료 일반에게 그런 느낌을 주었다는 것은 관심거리다. 그가 속한 게임 그룹 ‘내북단’ 명의로 정리된 바에 따르면, 내북 한 벌 달랑 걸치고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그들이 찾은 세상이 바로 ‘리니지라는 천국’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비루하게 살다가 만난 새 세상이 바로 리니지 가상공간이라고 말한다. 그곳은 일종의 ‘푸른 광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좋은 말로 게임 매니아, 솔직히 말하면 게임 폐인이 된 겁니다. 비루한, 너무나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터넷은, 게임은, 위대한 수령의 교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한여름 밤의 꿈일지라도…… 최소한 그 순간은 행복하니까요. 그 순간만은 비루하고 못한 자신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힘들게 도달한 조국인 남조선은 우리에게 게임이란 천국을 허락한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천국을 찾았습니다.¹⁹⁾

이렇게 가상현실에서만 생명감, 행복감을 느끼는 탈북자들의 현실은 대체로 비루하다. 탈북 초기에는 남한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 살아가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고, 체제가 다른 남한에서 그들이 사회의 중심부에서 당당하게 활동하며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소수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의 주변부에서 비루하게 살면서, 그들이 원했던 현실이 이게 아니었음을 떠올리며 불행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북한을 떠나왔기에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남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정착한 것도 아니다. 남한 사람들은 탈북자들을 동류로 공감하기보다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로 취급한다. 이해나 공감이 부족하고, 삶의 터

19) 앞의 책, 285~286면.

전도 막막한 환경이라, 그들의 삶은 더욱 비루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젊은층들은 게임 폐인이 되거나, 마약 혹은 포르노 중독으로 피폐해지기도 하고, 중장년층들은 절망한 나머지 자살로 삶을 서둘러 마감하기도 한다. 정주 아주머니의 전남편이 그런 사례이다. 북한 평안북도 정주 출신의 시인 백석의 시 세계를 기려 서울에 조성한 백석공원의 플라타너스 나무에 목을 매고 그는 자살한다. 그는 북한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적인 발언이 문제가 되어 농민으로 전락해, 아사가 북한을 덮칠 당시 아들을 잃고 탈북을 감행한 탈북자이다. 탈북 과정에서 아내와 딸을 압록강에서 잃었는데, 수장됐다고 믿었던 아내는 거꾸로 남편이 국경수비대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믿으며 한국에 들어와 목사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둘이 서로 만나게 되고 이 기막힌 운명에 절망한 그는 결국 자살을 택하고 마는 것이다. 주인공 같은 젊은 세대와는 달리 정주 아주머니나 그녀의 남편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기억을 지니고 있는 세대이다. 북한이 공산화되기 이전의 시기에 백석이 그린 정겨운 고향의 풍경은 그야말로 생태학적 동일성으로 충만한 곳이었다. 생태학적 무의식이 억압되지 않아 조화와 상생의 풍경으로 기억되는 그곳을 정치적인 이유로 상실했다는 느낌, 이식된 남한 사회에서 그런 고향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 가족 파탄의 고통 등이 정주 아주머니의 전 남편으로 하여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을 한 잡지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그 상실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남한에 와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더 이상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들, 고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밥이 없어 굶어 죽는 그곳이 무슨 고향이냐며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백석의 시는 탈북자들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한에서만 줄곧 살아온 나에게 백석의 시는 어휘부터가 너무나 낯설다. 그리고 이 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정서도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아름답고 아늑한 마을 공동체, 눈물나게 숨막히게, 살가운 마을을 노래한 민족시인 백석.

한동안 북한의 농촌 마을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내것 네것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의 마지막 문장이다. 이것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 완전한 세상이란 게 가능한 일인지…… 그 ‘이해하기 힘들’, 공감의 부재 속에서 탈북자들은 오늘도 유령처럼 우리 옆을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²⁰⁾

백석이 시에서 그렸던 생태학적 동일성의 세계를 상실한 탈북자들은 이제 가상공간에서나마 새로운 ‘가능 세계’²¹⁾를 모색하려 한다. 그들이 리니지 게임에서 그토록 바츠 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해 고투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생태학적 동일성의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한다. “온라인 게임 속으로 들어가 페인이 되는 데는 이틀이면 충분하지만 페인을 탈출하는 데는 한 달 이상이 걸린다. 어쩔 땐, 두 달 동안은 비몽사몽 가상공간도 현실도 아닌 곳을 헤매고 다닌 적도 있었다. 그보다 더 오랫동안 술에 취한 것 마냥 정신을 놓고 살기도 했다. 두 공간의 경계를 밟고 사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나는 차츰 기억을 잃어 가고 있는 마당이라 그 혼란이 더욱 힘들었다. 오래 전부터 망각이란 놈이 서서히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²²⁾ 그래서 예전에는 빼어

20) 앞의 책, 140면.

21) 라이언은 소박한 리얼리즘 사고를 넘어서 객관적 현실, 실제 세계, 비실제적 가능 세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가능 세계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Marie-Laure Ryan, 2001, *Narrative as Virtual Reality: Immersion and Interactivity in Literature and Electronic Media*, The Johns Hopkins UP., pp. 99-102 참조.) 한편 도레젤은 인간의 언어로 창조되는 세계를 가능 세계라고 보았다.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개념 안에서 가능 세계는 직관적인 것이었으며 전지적이면서도 신성한 정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그는 보고한다. 그런데 이런 기원과는 달리 이제 초월적인 영역에서 발견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과 육체 활동을 통해 가능 세계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 세계는 강력한 망원경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며 추측하고 믿는 것 혹은 바라는 것으로부터 변형 생성된다는 논지다. 아울러 도레젤은 가능 세계는 실제 세계의 대안 세계적 성격을 지니며,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 것과 일어날 것 모두를 포괄한다고 말한다.(Lubomir Dolezel, 1997, “Fictional and Historical Narrative: Meeting the Postmodernist Challenge”, D. Herman ed., *Narratologies: New Perspectives on Narrative Analysis*, Ohio State UP., pp. 253-255 참조.)

난 기억력을 지니고 있던 주인공도 점점 쇠퇴하는 기억력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보면서도 자기인줄을 모르기도 한다. 북한에 남은 가족을 위해 죽은 친구 하림의 이름을 쓰고 있는 주인공은,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하림이 되어 있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다. “꿈에서 가족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알았다. 보위부 군인 복장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북조선에 있을 때의 얼굴이 아니었다. 눈을 똑바로 떴다. 정말 북한에 있을 때와 다른 얼굴인가? 거울을 다시 쳐다보았다. 북쪽의 변방에 살던 하림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하림이 아닌 주철이다. 하림은 내 이름이 아니다. 북쪽의 가족 때문에 본명을 사용할 수 없어 빌려 쓴 이름이다.”²³⁾ 그가 시달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 서술자는 이런 주석을 붙인다. “이것은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괴롭히는 병이다. 어떤 상처는 빨리, 어떤 상처는 아주 천천히, 기억을, 마음을, 고스트를 잡아먹는다.”²⁴⁾ 이런 주인공의 성격을 다음 본문은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웬 놈이 아름답드리 플라타너스 나무에 기대서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중략) 불빛 사이로 놈의 얼굴이 언뜻 드러났다 사라진다. 하림이다. 내 콩팥 속에 숨어사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하림인데…… 놈은 나란 말인가? 아니다. 하림은 내 친구다. 그는 칼을 움켜쥐고 벤치 쪽으로 걸어온다.

—주철아, 나 몰라?

놈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온다.

—……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가쁘게 숨을 몰아쉰다.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22) 강희진, 앞의 책, 117면.

23) 앞의 책, 107~108면.

24) 앞의 책, 136면.

움직인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몬스터이다. 괴물을 물리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모가지가 달아날지 모른다. 하림이라고? 내가 그 따위 구라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았다. 서둘러야 한다. 내 같은, 쿠사나기의 투구는 어디로 갔나? 갑옷은…… 빨리 몸을 쿠사나기 캐릭터로 바꿔야 한다. 내 아바타로 놈의 목을 따야 한다. 한 칼에…… 바츠 해방전쟁 당시의 그 날렵한 솜씨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것이 게임의 법칙이다. (중략) 그런데 마우스가 꼼짝하지 않는다. 온힘을 손가락에 쏟아 부었다. 왜,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 고장인가? 하필 이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놈은 다크엘프, 암살자다. 분명하다. 그의 칼을 내 몸속에 박아 넣을지 모른다. 나는 목이 달아나 피를 쏟고 공원 바닥에 꼬꾸라질 것 같다. 그런데, 놈은 몬스터가 아니다. 하림이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그가 나를 잡기 위해 달려온다. 그의 한쪽 눈알이 땅바닥에 떨어진 다. 사과만한 눈알이 공처럼 구른다. 그는 개의치 않고 나를 향해 뛰어왔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도 뛰기 시작했다. 하림의 가면을 둘러쓴 적인지 모른다. 전설의 전사 쿠사나기의 모가지엔 현상금이 걸려 있다. 나는 이동할 때마다 손을 움짚대면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다. 가면을 쓴 몬스터가 따라온다. 놈의 걸음이 빨라진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마우스를 움직인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손가락을 빠르게 누른다. 클릭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래도 놈은 자꾸 따라온다. 꿈도 게임도 아니다.²⁵⁾

먼저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며 분열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하림인지, 주철인지 혼란스러워 한다. 그의 안과 밖이 분열되어 있다. 또 자신을 향한 위협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가상세계에서의 일인지 혼란스러워 한다. “꿈도 게임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게임 속에서 현실을 만나고, 현실에서 게임을 만나며

25) 앞의 책, 22~23면.

분열증을 일으킨다. 현실의 위협을 가상현실 속에서 해결하려 하고, 가상현실의 위협을 현실에서 느낀다. 현실이 가상현실이 되고, 가상현실이 현실이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피비우스의 띠 같기도 하다. 혹은 더 험클어진 실타래처럼 분열되어 있다. 그런 혼란과 경계 착란 상태에서 한 달 넘게 게 임방에 처박혀 폐인처럼 지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이 소설의 줄기 중의 하나가 회령 아저씨를 살해한 범인이 누구냐 인데, 주인공은 경찰에서 외적인 알리바이로 혐의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를 죽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억하지 못한다. 또 자기가 회령 아저씨를 죽였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은 정주 아주머니의 유서를 보고도 그것이 자신이 위조한 유서인지 아니면 그녀의 필체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된다.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서 그에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더 이상 그가 아니다. 그 어떤 행위도 기억도 분명치 않다.²⁶⁾ 분단 환경에서 이식된 탈북자의 비극적인 초상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환기한다. 북한을 탈출하면서 꿈꾸었을 푸른 광장에 대한 기억조차 상실한 모습이다. 1960년 이명준이 꿈꾸었던 ‘푸른 광장’ 으로부터 2011년의 주철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V. 맺음말

최인훈의 『광장』의 이명준은 분단 1세대이며 한국전쟁 참전자이다. 박상연의 『DMZ』의 베르사미는 참전자인 이연우의 아들로 분단 2세대이지만, 켈트 혼혈의 스위스 국적자로 이방인의 시선을 지니고 있다. 강희진의

26) 이지훈은 고립된 게임의 유아론적 관점의 위협과 가상의 악을 지적하면서, ‘전체에 대한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지훈, 1999, 「가상현실의 형이상학」, 『철학』 Vol. 58 No. 1, 한국철학회, 149면.). 그러나 ‘전체에 대한 통찰’로 생태학적 동일성의 회복 도정에 이르기보다는 『유령』의 주인공처럼 반대의 경우가 현실적이며 문제적인 게 사실이다.

『유령』에서 주철은 분단 3세대의 탈북자로서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 이명준은 자살 직전 환각 속에서나마 ‘푸른 광장’을 응시했었다. 푸른 광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소망스런 공간의 상징이다. 인류의 집단무의식이 오래 꿈꾸었던 유토피아에 가까운 공간이고, 거기에서라면 생태학적 동일성이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공간이다. 물론 남과 북의 경계가 사라진, 그러니까 분단 상황이 해소된 한반도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작가 최인훈이 제시한 푸른 광장의 상징성은 한국인의 오랜 정치적 무의식과 생태학적 무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 시대를 사는 한국인들의 공통된 소망이 거기에 은축되어 있다. 그러기에 최인훈 이후 많은 작가들도 푸른 광장에 대한 재탐색을 계속했다. 냉전시대에 꾸었던 그런 소망은 탈냉전시대가 되어도 충족되기 어려웠다. 박상연은 『DMZ』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 모티프를 통해 냉전시대의 비극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분단 환경에 대한 사회생물학적 성찰을 한다. 디지털시대를 배경으로 한 강희진의 『유령』에서는 현실에서 푸른 광장을 찾을 수 없었던 탈북자가 디지털 게임 공간에 빠져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에서 착란과 분열을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에게 있어서 가상현실은 불우한 현실에 대한 대안적 가능 세계이기도 하면서, 현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부정적 환경이기도 하다.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서의 유령 같은 존재는 생태학적 동일성의 세계를 담은 고향의 모습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푸른 광장에의 꿈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모든 생태 환경 문제가 분단 상황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이슈에서 분단 환경은 크고 작은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산가족, 실향민, 군비 증강 경쟁, 천암함 사건이나 연평해전 같은 국지전적 분쟁 등 분단 환경이 야기한 이런저런 문제들은 분명히 생태학적 동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분단 환경에서 맞서 있는 상황 자체가 생태학적 무의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푸른 광장

으로 상징되는 과제가 한반도에서는 매우 긴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한반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생태학적 동일성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경쟁하고 갈등하고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구촌 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꿈꾸는 소망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여전히 ‘오래된 미래’인 ‘푸른 광장’을 찾아 나선다.

[투 고 일 : 2011년 7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1년 8월 3일]

[게재확정일 : 2011년 8월 3일]

참고문헌

- 강희진. 2001. 『유령』. 서울: 은행나무.
- 박상연. 1997. 『DMZ』. 서울: 민음사.
- 최인훈. 1978/1996. 『광장/구운몽』. 서울: 문학과지성사.
- 고인환. 2009.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2: 215-245.
- 김효석. 2010. “‘거울’의 서사와 ‘탈북’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 『문예운동』 105: 388-408.
- 백지연. 2009. “타자의 인식과 공공성의 성찰.” 『창작과 비평』 146: 57-75.
- 우찬제. 2003. 『고독한 공생』. 서울: 문학과지성사.
- 우찬제. 2005. 『텍스트의 수사학』.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이경재. 2009. “네이션과 2000년대 한국소설.” 『문학수첩』 7(4): 39-52.
- 이성희. 2009.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한국문학논총』 51: 261-288.
- 이지훈. 1999. “가상현실의 형이상학.” 『철학』 58: 127-150.
- 홍용희. 2009.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40: 377-396.
- Bookchin, Murray. 1995. *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 Essays on Dialectical Naturalism*. New York: Block Rose Books.
- Dolezel, Lubomir. 1997. “Fictional and Historical Narrative: Meeting the Postmodernist Challenge.” D. Herman, ed. *Narratologies: New Perspectives on Narrative Analysis*. Columbus: Ohio State UP.
- Metzner, Ralph. 1995. “The Psychopathology of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Theodore Roszak, Mary E. Gomes & Allen D. Kanner, eds. *Ecopsychology: Restoring the Earth Healing the Mind*.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Roszak, Theodore. 1992. *The Voice of the Earth*. New York: Simon & Schuster.
- Ryan, Marie-Laure. 2001. *Narrative as Virtual Reality: Immersion and Interactivity in Literature and Electronic Media*.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P.

ABSTRACT**Imagination of the Condition of National Division and Boundary Line****WU Chan J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is the complex symbol of great importance. It is one of crucial causes that have destroyed the ecological identity. Consequently, Korean literature has shown various symptoms according to every different period, embodying persistently the state of losing the ecological identity caused by the national division and its desire of restoring its original state, while it has gone through the periods of Cold War, post-Cold War, and digital age. Such novels as Choi In-hun's *The Square*(1960), Park Sang-yon's *DMZ*(1997), and Kang Hui-jin's *Ghost*(2011) have many things in common, as they treat the tragic features caused by the national division, and share lots of controversial points in regard of reminding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the imagery of national division for every period distinctively.

Yi Myung-jun in Choi In-hun's *The Square*(1960) is the very picture of the first generation of the national division. He has given up every hope of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has lost the ecological identity, and commits suicide on the ship sailing towards the third country. But he is the character who has much significance in regards of presenting the ideal type of 'the blue square', that is the symbol of the ecological identity. Bersami in Park Sang-yon's *DMZ*, Yi Yon-wu's son belongs to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national division. He reminds us the fact that the tragedy of the Cold War is ongoing, through the searching view of an alien in post-Cold War period and its ‘operant conditioning’ motif. The Kang Hui-jin’s *Ghost* takes place in the setting of the digital age. In this novel, a North Korean defector appears as a main character. He cannot find ‘the blue square’ in reality and becomes absorbed into the digital game space. As a result, he becomes mentally deranged in the schizophrenic state on the boundary line between reality and virtual reality, while bearing his life very painfully. To him, virtual reality can be considered both alternative possible world and the negative environment which makes the reality worse.

In this way, we can realize that all the three novels already discussed are related with the condition of the national division of Korea and the loss of the ecological identity. All the characters in these novels show the hope to move forward from loss to restoration under their own conditions in which they are placed, but consequently, their wishes are destined never to be fulfilled in reality.

Key Words the condition of national division, imagination of boundary line, ecological identity, the blue square, operant conditioning, virtual reality, Choi In-hun, The Square, Park Sang-yeon, DMZ, Kang Hui-jin, Ghost